

COME & SEE

2026 BETHEL THEME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엄위하시도다"
(시편 66장 5절)



담임목사: 김한요
Rev. Bryan Kim, Lead Pastor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 www.bkc.org ♦ bethel@bkc.org
Tel: 949.854.4010 ♦ Helpdesk(Text-only): 949-229-1181

교회학교 및 그 외 주일예배 안내



- 영아부(0-1.5세) / 본당 1층 영아부실
9:00AM, 11:00AM
- 유아부(1.5-3세) / 본당 2층 유아부실
9:00AM, 11:00AM
- 유치부(3세-PreK) / 할렐루야채플
9:00AM, 11:00AM
- K-1(킨더가든-1학년) / 임마누엘채플
9:00AM, 11:00AM
- 유년부(2-3학년) / 유년부실
9:00AM, 11:00AM
- 초등부(4-5학년) / 체육관
9:00AM, 11:00AM
- 영어중등부(BYM JHS) / 찬양채플, 비전채플
9:00AM(찬양채플), 11:00AM(비전채플)
- 영어고등부(BYM HS) / 비전채플, 비전센터09호
9:00AM(비전채플), 11:00AM(비전센터09호)
- 한어중고등부(CIM) / 찬양채플
11:00AM
- 소망부(장애인) / 조이채플
9:00AM, 11:00AM
- BETHEL GRACE CHURCH /
베델그레이스채플, 온라인
9:00AM, 11:00AM
- 日本語 礼拝 / 임마누엘채플
1:15PM

담임목사 방송설교 안내

- **공중파 TV 방송:**
미주 CGN TV 채널 44.9 · 화요일/오후 3시
- **케이블TV 방송 (CTS America):**
TV DirecTV 채널 2092 · 공중파 채널 18.8
화요일/오후 6시 45분 · 목요일/오후 12시 30분
- **라디오 방송 (GBC 미주복음방송):**
주파수 AM 1190 KHZ · 금요일/오후 1시

주 일 예 배 Lord's Day Worship Service

1부 예배 | 7:00AM 2부 예배 | 9:00AM 3부 예배 | 11:00AM 4부(청년) 예배 | 2:00PM

- *예배의 부름 Call to WorshipPrisider **예배 인도자**
- *신앙고백 The Apostles' Creed 사도신경 Altogether **다같이**
- *찬양과 경배 Praise & Worship Bethel Worship **베델 워십**
1부/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찬53/새9장)

기도 Prayer..... Altogether **다같이**
1부/임동역 장로 2부/이선갑 장로 3부/박성규 집사 4부/김승진 집사

찬양(1부) Anthem..... Bethel Choir **베델 콰이어**
1부/영광의 주님(김희조 작곡)

영상광고 Media AnnouncementMedia **방송실**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1, 2, 3부/마가복음(Mark 5:25-34) Altogether **다같이**
4부/요한복음(John) 4:25-34

말씀 Message 1, 2, 3부..... Rev. Tae Heon Jo **조태현 목사**

옷에만 손을 대어도

4부..... Rev. Solomon Kang **강솔로몬 목사**
Solus Christus(11) 이상적인 이상한 전도

적용찬양 Song of Response Altogether **다같이**
1, 2, 3부/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주의 옷자락 만지며

*결단찬양 및 봉헌 Song of Dedication and Closing Altogether **다같이**
1, 2, 3부/Come and See 50

*축도 Benediction Rev. Tae Heon Jo **조태현 목사**

*표는 모두 일어나 주십시오.

★ 온라인 예배와 현장 예배가 동시통역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www.bkc.org)

목회자 칼럼
Pastor's Column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가족

A Family That Does the Will of God



조태현 목사 / Rev. Tae Heon Jo

한국에서는 곧 민족의 명절인 구정, 설날연휴를 보내게 됩니다. 모처럼 가족들이 함께 모여 식사하며 안부를 묻고, 세배를 드린 후 받은 세뱃돈으로 무엇을 살까 고민했던 기억들이 생생하네요. 하지만 늘 좋은 기억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명절에 친척들이 모이면 꼭 한바탕 다툼이 일어나거나 언성이 높아지는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한국에서의 통계에도 명절 연휴 기간에 가족의 다툼과 싸움으로 신고되는 건수가 평소대비 45% 이상 급증하며, 명절 직후 폭증하는 검색어가 '이혼 상담', '부부 갈등', '가족 싸움'이라고 하니 마냥 즐거워 할 수만 없는 안타까운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가정마다 여러 사연과 갈등들이 있겠지요. 많은 전문가들이 가정의 화목을 위해 갖가지 솔루션을 제공하곤 합니다. 하지만 여지없이 무너져 버리는 가정의 현실 앞에서 낙담이 되어 타협점이라도 찾으려 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일 것입니다.

함께 큐티했던 마가복음 3장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예수님이 식사할 겨를도 없이 사역을 하시는데 친척들이 몰려와 예수님을 붙들고 말립니다. 미쳤냐며 막말을 서슴지 않았습니다(20,21절).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이 귀신의 힘을 빌어서 행한 것이라 모함하죠(22절). 때마침 도착한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은 곤란한 분위기를 감지했는지 밖에 서서 예수님을 부르입니다(31절).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냐”(33-35절) 우리는 가족을 누구보다 사랑하고 아낀다고, 내 가족이니 가장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그만큼 큰 착각이 없습니다. 오히려 너무 익숙하기에 어디에서부터 문제인지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여전히 부패한 죄인이며 내 틀 안에 갇혀 있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이지요. 아들이신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와 온전히 하나 되신 근거는 말씀에 대한 일치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듯, 이 땅에서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아들을 통해 이루어지는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은 가족에게 실망하고 맘이 상해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누구보다 어머니와 동생들, 심지어 미쳤다고 몰아세운 친척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길, 말씀이신 자신 옆에 둘러 앉아 있길 바라셨을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이 모여야 진정한 사랑과 연합과 일치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번 구정 연휴에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역사가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으로 충만하여서 친척들을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하는 모든 베델가족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In Korea, we will soon observe Lunar New Year, one of our nation's major holidays. I vividly remember the times when family members gathered together, shared meals, asked about each other's well-being, and after offering New Year's bows (Sebae), wondered what to buy with the gift money we received. However, not all memories were pleasant. When relatives gathered during the holiday, arguments would often break out and voices would be raised. Statistics in Korea show that during the holiday period, reports of family disputes and fights increase by more than 45% compared to normal times. After the holidays, search terms like "divorce counseling," "marital conflict," and "family fight" skyrocket. This sobering reality makes it difficult to celebrate with unreserved joy. Every family has its own stories and conflicts. Many experts offer various solutions for family harmony. Yet in the face of families that continue to fall apart, we often grow discouraged and settle for mere compromise as the best we can do.

I am reminded of Mark chapter 3, which we reflected on together for QT. Jesus was so occupied in his ministry that he did not even have time to eat. His relatives came and tried to restrain him, saying that he was out of his mind (vv. 20-21). The teachers of the law accused Him of performing miracles by the power of demons (v. 22). Around that time, Jesus' mother and brothers arrived. Perhaps sensing the tense situation, they stood outside and called for him (v. 31). He said, "Who are my mother and my brothers?" And looking at those seated around him, he said, "Here are my mother and my brothers! Whoever does the will of God is my brother and sister and mother"(vv. 33-35). When we deal with our families, we think we love them the most, cherish them the most, and know them best simply because they are ours. But this can be a great illusion. Precisely because we are so familiar with one another, we often fail to recognize where the real problems begin. We remain corrupted sinners, weak and confined within our own narrow perspectives. The basis for Jesus, the Son, being perfectly one with God the Father was their unity in the Word. Just as the Father's will is accomplished in heaven, so it is accomplished on earth through the Son who came in human flesh. Jesus did not say these words out of disappointment or hurt feelings toward His family. More than anyone, he desired that his mother, his brothers, and even the relatives who called him insane would stand before the Word of God and sit beside him, who is the Word. True love, unity, and harmony are possible only when our hearts are gathered into the heart of God.

During this Lunar New Year holiday, I earnestly pray that God will grant every household to obey the will of God. May all Bethel families be filled with the Word and lead their relatives into God's will.

주일 1-3부 설교노트 / 나눔교재

설교자: 조태헌 목사

옷에만 손을 대어도 마가복음 5:25-34

1. 열두 해 혈루증을 앓아 온 여인은 의지하고 기대하던 것들이 무너지고 도리어 더 힘들어졌다고 합니다. 무슨 수를 써도 되지 않았고, 오히려 더 낙심과 곤경에 빠진 일이 있었습니까?
2. 여인은 예수의 소문에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오늘의 말씀이 나에게 주신 예수의 소문이라면 나는 믿음으로 어떤 반응을 할 수 있나요?
3.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니 혈루의 근원이 말랐다고 합니다. 예수님께 나아가 회복되고 치료받길 원하는 나의 혈루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4. 예수님은 숨고자 했던 여인을 드러내시고 모든 사실을 고백하게 하십니다. 나의 괴로움과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를 누구에게 고백하고 나누어야 할까요?
5. 부정함은 죄에 대한 정죄만이 아니라 다시 온전한 예배로 나아가기 위한 겸손한 준비라 말할 수 있습니다. 부정함에서 간절한 예배로 나아갔던 순간들을 나눠봅시다.

■ 적용찬양: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주의 옷자락 만지며

적용하기



신년 인사
교회학교 목회자

다음세대를 세우는 사명!



김한나 전도사
(영어고등부-BYM HS Holos)
As a new year begins, a moment of stillness reminds us that we are here only by God's grace.

My prayer for our students is that they would draw near to that very grace—that they would come and see, come and rest, come and abide, and in doing so, bear the fruit of Christ in their lives.



신재민 전도사
(영어중등부-BYM JHS Qara)
이렇게 미국에 와서 처음으로 온 가족 같은 교회에서 섬기게 된 것이 믿기지 않습니다. 제 청소년기에 하나님

을 뜨겁게 만났던 교회의 중등부를 섬기게 되어 감격스럽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2026년에 새롭게 사역을 시작하면서 본이 되는 사역자로 성장하고, 아이들이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고 가까이할 수 있는 부서로 키워 나가고 싶습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경외하며 나아갈 것을 다짐하며 나아갑니다.



이성우 목사
(한어중고등부-CIM))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전심을 다해 예배에 인생을 걸고, 말씀과

기도 훈련에 전념하여 영성이 있는 공동체가 되며, 특별히 이웃을 섬기고 나누며 선교하는 공동체가 되는 것에 집중하는 한 해가 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학생들과 함께 복음을 들고 캠퍼스와 가정으로 나아가는 한 해가 되길 기도합니다.



이지원 전도사
(초등부)
베델의 가족 여러분께 초등부에서 인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초등부를 신실하게 인도하신 주님께서 2026년에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실지 기대가 됩니다.

특 biệt히 'Come & See 50'을 맞아,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직접 보고 경험하며 담대히 증거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는 초등부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을 온 마음으로 사랑하고 찬양하며, 복음을 누리고 나누는 초등부가 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겠어요? 모든 베델의 자녀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승진 전도사
(유년부)
새해에도 말씀과 기도로 다음 세대를 세우는 사명을 붙들습니다.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도 성실히 섬기며, 하나님

께서 일하심을 신뢰하며 맡겨진 사명을 겸손히 감당하겠습니다. "Come and See"의 마음으로 함께 동역하는 선생님들과 TA, 학부모님과 팀워크 안에서 다음 세대가 주님의 사람으로 자라가도록 신실하게 동행하겠습니다. 올해도 변함없이 말씀의 기초 위에 아이들의 믿음을 세우며 사랑으로 돌보겠습니다. 새해에 주님의 평강이 충만하시길 축복합니다.



정가영 전도사
(K-1)
베델교회 교육부서를 섬긴 8년의 시간을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좋은 교사분들을 보내 주시고 부족한 저에게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매년 새로운 아이들을 만나고, 정들었던 아이들을 보내며 사역해 왔지만, 결코 반복이 아닌 해마다 새로운 은혜의 여정이요 주님께서 주신 특별한 은혜 시간입니다. 올해도 주님만을 의지함으로, 교사와 자녀들이 말씀과 기도로 바로 서는 공동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 저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영광과 의가 드러나는 케이원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전소연 전도사
(유치부/아기학교)
2026년 새해를 맞아 베델교회 유치부 전도사로 인사드립니다. 유치부 공동체를 넘어 베델교회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바라보며, 아이들과 함께 드리는 찬양과 기도의 예배가 교회의 내일을 밝히는 씨앗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과 사랑으로 아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정성껏 돌보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모든 세대가 함께 자라가는 베델교회가 되도록 기도하며 섬기겠습니다.



이경은 전도사
(유아부)
2026년, 유아부를 시작하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섭니다. 매주

아이들을 만나며 유아부의 순수한 기쁨과 매력에 이끌립니다.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 말씀을 준비하는 시간은 은혜이자 소중한 기쁨입니다. 부족한 저를 통해 아이들에게 말씀이 전해진다는 사실에 무거운 책임감과 함께, 큰 감사와 기쁨을 누립니다. 말씀의 작은 씨앗이 아이들 마음에 심겨져 자라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웃에게는 사랑으로 흘러가는 아름다운 열매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걸음을 인도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매 순간 겸손히 순종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최미정 전도사
(영아부)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는 2026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베델교회 50년의 역사 속에서 영아부는 첫 돌을 맞

이합니다. 믿음의 가정들이 예배를 중심으로 이어져 온 베델 공동체 안에서, 영아부는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이 예배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자녀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부모와 함께 예배

(5면 상에 계속)

하며 신앙의 기초를 세워 가도록 돕습니다. 가정과 교회가 함께 다음 세대를 말씀으로 세우는 귀한 사역의 자리에 부르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말씀과 기도로 아이들과 가정이 하나님 안에서 자라가도록 섬기겠습니다.



김재은 전도사
(소망부)

2026년 새해에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의 자리마다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소망부는 올해도 주님의 말씀과 사랑 안에서 믿음이 쑥쑥 자라나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또한 지난 가을 새롭게 시작한 소망 오케스트라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리는 찬양의 열매가 아름답게 맺히기를 기대합니다. 모두가 한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은혜의 여정에 성도님들의 기도와 따뜻한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신년 인사
실행위원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성도님들의 가정에 가득하시길 기도합니다. 이번엔 부족한 저를 2026년 실행위원회 서기장로의 귀한 사역으로 불러주신 주님의 섭리와 성도 여러분의 신뢰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50년 동안 지켜주신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질서와 살림을 돌보는 일에 겸허한 마음으로 섬기겠습니다. 실행위원회 서기장로서 교회의 모든 결정과 기록을 정직하고 품위 있게 관리하여 베델공동체의 신뢰를 든든히 세우겠습니다. 또한, 성도님들의 목소리를 겸손히 경청하며 교회의 화합을 위해 지혜를 모으겠습니다.

무엇보다 주님의 뜻을 앞세우는 기도를 통해 주님의 뜻이 베델공동체에서 이루어져 즐겁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기도, 충성, 섬김

소명을 기쁘게 감당할 수 있도록 따뜻한 격려와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강오 장로(서기)



섬기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본받아 저를 비롯하여 모든 베델교회 성도들이 '함께'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충성되어 감당할 때 주님께서 최선으로 인도하시고 힘 주실 것을 믿습니다.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시 66:5) 베델교회 50주년을 맞이하여 주님께서 우리 베델을 통해 이루실 놀라운 일들에 온 성도가 '함께' 참여하고, 목격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awesome Come & See가 되길 기도합니다.

Sam Kim 장로(총무)

예배
베델위십

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라!



베델위십을 섬긴다는 것은 단순한 음악적 감동을 넘어, 한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는 거룩한 부르심입니다. 사실 저는 이 자리에 서기에 참으로 부족한 사람입니다. 때로는 삶의 무게에 짓눌려 찬양할 힘조차 없을 때가 있고, 사람들의 시선이나 나의 연약함 때문에 무대 뒤에서 마음이 무너질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라고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 말씀하시며 저를 다시 일으켜 주십니다.

저의 영적 롤모델은 다윗입니다. 그는 환희의 순간뿐 아니라 생명의 위협을 느끼던 깊은 동굴 속 절망의 순간에도 여호와를 향한 찬양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 역시 그 다윗의 마음을 닦

고 싶습니다. 남들에게 평범한 노래일지 몰라도 제게는 눈물로 지켜낸 신앙의 고백이기에, 어떤 상황에서도 찬양을 놓지 않는 것이 저만의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영적 호흡과 같은 루틴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낮은 곳에 있을 때 드리는 그 작은 신음 같은 찬양을 가장 크게 기뻐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는 'Come and See'라는 주제로 나아갑니다. 이 주제곡은 길을 잃고 방황하는 '잃어버린 한 영혼'을 향한 간절한 초대장입니다. 마음이 상해 예배의 자리를 떠난 이들, 하나님의 위로가 간절한 이들에게 우리의 찬양이 그분께로 인도하는 따뜻한 손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다윗처럼 꾸밈없는 진실함으로 예배할 때, 그 노래를 듣는 이들이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와서 하

나님의 사랑을 보라"는 저의 진솔한 고백이 절망 중에 있는 누군가에게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구원의 이정표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한 영혼의 구원과 회복을 위해 베델의 찬양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형편에서든 기쁨으로 드리는 이 찬양의 제사를 통해, 잃어버린 양들이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는 기적이 일어나길 두 손 모아 기도합니다. Come, See & Praise!

임세진 집사



훈련
BAM

소명으로 살아가는 삶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창 1:28) BAM 훈련을 통하여 노동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며, 일은 우리의 소명이자 하나님을 향한 예배임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의 죄로 타락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더욱 깊이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일은 예배이며, 맡겨 주신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선한 영향

력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것임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또한 선교가 삶의 중심이 되어 우리 가정과 공동체, 사회 속에서 선교적인 삶으로 살아가야겠다는 각오와 소망이 생겼습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 주님의 주권과 통치가 있음을 생각하니 어려운 일을 만날 때에도 온전케 하시는 주님만 바라보며 한 걸음씩 나아가게 됩니다. 이번 훈련을 통해 일을 바라보는 태도와 방식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분의 사랑을 드러내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삶의 주인이시며 모든 영역의 참된 경영자 되시는 주님을 높이며 찬양합니다.

김두환 장로

선교지에 대한 꿈을 품고 언젠가는 선교사님들을 지원하고, 제가 선교지에 가게 된다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하던 중 BAM 훈련 광고를 접하게 되었고 궁금한 마음으로 1단계 훈련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막연한 호기심으로 시작했지만, 매주 함께 드리는 예배와 소그룹 모

임을 통해 제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다시 바라보게 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특히 직장 사회 속에서도 크리스천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갈 수 있음을 깨닫게 된 것은 제게 큰 전환점이었습니다.

이번 훈련을 통해 선교지는 먼 곳만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일터와 삶의 현장임을 알게 되었고, 어디에서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또한 일상의 자리에서 작은 순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소중한 사명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깨달음은 제 삶의 방향과 태도를 새롭게 세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BAM 훈련은 우리의 삶 속에서 주어진 소명을 발견하게 하고, 크리스천으로서의 정체성을 새롭게 확인하며 은혜의 감격을 누리게 하는 귀한 시간이라 믿습니다.

김지광 집사

성례
유아세례

삶으로 본이 되고자 합니다!



2026년의 첫 주, 하나님의 은혜와 따뜻한 축복 속에서 온유가 유아세례를 받았습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축복처럼 허락하신 온유와 함께한 지난 1년을 감

사로 돌아보며, 온유를 저희 가정에 보내주시고 건강하게 지켜주신 하나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함께 기뻐해 주시고 따뜻한 축하와 기도로 축복해 주신 모든 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부모로서 온유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귀한 선물은 믿음이라 고백하며, 흔들렸던 저희의 신앙을 먼저 바로 세우고자 베델교회에 새가족으로 등록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유아세례를 받았습니다.

지금은 온유가 스스로 신앙을 고백할 수 없기에, 부모 된 저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삶으로 본이 되고자 합니다. 기도와 사랑으로 온유가 늘 하나님의 편에 서서 삶의 모든 순간을 살아가도록 양육하겠습니다. 저희 가정을 위해 계속해서 사랑과 기도로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옥성/김근혜



저와 남편이 하나님 안에서 가정을 이루고, 이제는 한 아이의 부모가 되어 전교인 앞에서 로아의 유아세례를 받게 되었다는 것이 저희에게는 큰 은혜이고 감사입니다. 특별히 저희는 예살 공동체 안에서

만나 서로의 신앙이 자라고, 장년부로 올라오며 하나님께 시선을 두기 위해 고군분투해 온 시간들이 있었기에 지금 이 순간이 더욱 특별하게 느껴집니다. 로아는 저희 가정에 허락하신 순종의 열매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심을 분명히 보여주시는 증거이자 귀한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아이를 주시던 그 아이는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기에, 하늘에 소망을 두고 순종함으로 담대히 양육하겠다는 결단으로 로아를 품고 낳았습니다. 유아세례를 통해 그 결단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며, 말씀 안에 바로 서고 늘 기도와 예배 가운데 살아가는 부모가 되기를 다짐합니다. 로아가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이 세상 가운데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복음을 전하는 아이로 자라가기를 소망합니다.

최의영/최은경 집사

담임목사: 김한요 목사

◎목회자◎

- 기획/행정: 주성필 목사
- 소망/선교: 이충경 목사
- 기쁨/찬양/전도: 박경철 목사
- 화평/운유/성김: 박성권 목사
- 사랑/셀/올림: 조태현 목사
- 충성/Joy/훈련: 서동민 목사
- 믿음/새가족/QTin: 조동현 목사
- 은혜/예배/BCA: 배홍수 목사
- BGC 담임: Dan Nam 목사
- BGC(College/Worship): Peter Lee 목사
- BGC(Young Adult): Daniel Yoon 전도사
- 일본어/수요예배/기도: 손용주 목사
- 예삼채플(총괄): 강솔로몬 목사
- 예삼채플: 공병주 전도사
- 예삼채플: 이형석 목사
- 예삼채플: 최요셉 인턴 전도사
- 영어고등부: 김한나(Hanna) 전도사
- 교회학교(총괄)/영어중등부: 현호승(Daniel) 목사
- 영어중등부: 신재민 전도사
- 한어중고등부: 이성우 목사
- 초등부: 이지원(Cindy) 전도사
- 유년부: 이승진(Sharon) 전도사
- K-1: 정가영(April) 전도사
- 유치부/아기학교: 전소연 전도사
- 유아부: 이경은 전도사
- 영아부: 최미정 전도사
- 소망부: 김재은 전도사
- Beyond the Blue: 이란혜 전도사
- 환우: 정티나 목사
- 병원심방: 김현일 협동목사
- 상담: 황성철 협동목사
- 의료상담: 이강민 전도사

◎베델 콰이어 및 찬양팀◎

- 지휘자: 김형직 목사
- 솔리스트: 최정원
- 뮤직디렉터: 정봉화
- 반주자: 한현미, 박정연
- 예삼 워십: 조요셉

◎교회 직원 및 간사◎

- 사무장: 조주은
- 건물/차량관리: 김유호
- 사무실: 안현미, 이미옥
- 재정실: 이수민
- 방송실장: 박주남 전도사
- 방송실: 민윤기, 김앤드류(인턴)
- 목회지원/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음향: 최철기
- 컨텐츠 디렉터: 최종형
- 음향: 강창위, 한 진
- 디자인: 박선경
- 웹/IT: 김정아
- 수용관: 오춘란

사역광고

베델 BAM 훈련 모집

아직 훈련 등록을 못 하셨나요? 절대 걱정하지 마세요! 베델 BAM 훈련은 2월 19일(목)부터 시작되니 지금 바로 QR 코드를 스캔하시거나 교회 등록 부스에 방문하셔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BAM 훈련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삶의 자리인 가정과 학교, 그리고 직장이라는 일상의 현장에서 주님의 복음을 자연스럽게 전하고, 하나님 나라의 선한 영향력을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방법으로 함께 고민하며 배우고 실천하는 특별하고도 의미 있는 훈련 프로그램입니다. 교육 과정은 1단계, 2단계, 3단계 과정으로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온라인 동영상 강의를 통해 깊이 있는 이론을 배우고, 오프라인 소그룹에서 나눔과 실천을 병행하여 진행합니다. 각 단계는 총 13주 과정이며 매주 목요일 저녁 7시에 정기 모임이 있습니다. 훈련 대상은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배우는 내용은 일상생활에서 적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내용들로 알차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BAM 훈련 각 단계를 통해 실제 사례를 깊이 있게 연구하고, 의미 있는 프로젝트를 직접 수행하며, 모의 창업 과정까지 경험하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서 있는 바로 이 자리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실까요? 급격하게 변화하는 시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천으로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선교 현장에 직접 파송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고 싶으신가요? 이러한 모든 중요한 질문들에 대한 명확하고 총체적인 답을 베델 BAM 훈련을 통해 함께 찾아가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초대합니다!

- ▶ **훈련일정:** 2월 19일(목)~6월 4일(목), 매주 목요일 저녁 7시, 총 13주
- ▶ **훈련장소:** 조이채플(교회사무실 옆)
- ▶ **문의:** 장지봉 집사 (949)899-7334



예배 봉사자

주일에배 대표기도(2,3월)	2/22:	①부-이창열	②부-조관희	③부-박준경	④부-김문정
	3/1:	①부-유형석	②부-장천경	③부-윤대호	④부-양경인
	3/8:	①부-조부연	②부-윤태경	③부-정병철	④부-김유리

헵시바 토요새벽 대표기도(2,3월)	2/21:	김영민	2/28:	김영현	3/7:	김종철	3/14:	박영선
	강단꽃(2,3월)	2/15:	이경희, 조 룡	2/22:	노성애	3/1:	선상균, 왕예찬	3/8:

[의무실(오전 8:30-오후 1:00)]

이번주 | 의사-박종구(치과), 간호사-이정하 다음주 | 의사-연규호(내과), 간호사-이옥선

선교후원

- [파송선교사] **창의적접근지역** | 손승옥, 김진영, 서형렬(서정희), 오세영(오미숙), 장주원(장한나), 이희숙, 장과장(주예매), 호세아(그사랑), Nader(Dina), Yeshua, Reza
- 조지아** | 김현수(고봉주) **캄보디아** | 황순현(황현주)
- [협력선교사] **기니비사우** | 유요한(유글로리아) **니카라과** | 박우석(이현숙) **이스라엘** | 장이삭(정이나)
- 멕시코 과달라하라** | 허익현(김영중) **몽골** | 을지바트(민애령), Kathy Ribbs **베트남** | 성경(양선) **브라질** | 브레노(에스터)
- 온두라스** | 이동철(이수민) **우간다** | 박민수(이순영) **일본** | 강민숙(변선영) **캄보디아** | 김우정(박정희), 김인성
- 코스타리카** | 금상호(김미경) **탄자니아** | 황광인(황영숙) **태국** | 박상선(신영선)
- 창의적접근지역** | 김예평(김진명), 이상훈 **문화선교** | 공 민(The Bridge), 김도현(나비공방)
- *선교기관 | 나눔선교회, 밀알선교회, 바실레이아 신학교, 소망 소사이어티, 한미가정상담소, Gift of Vision, GMMMA, GP미주본부, AU&W, New Hope 선교 유치원, QTm America, Silk Wave Mission, The Center for BAM(CBAM), 푸른초장의 집
- *특별선교 | 복음방송(GBC), CTS, CGN TV
- *문서선교 | 기독교일보, 미주 크리스천 신문, 크리스천 위클리

베델 알림판

Bethel Announcements

◆ **새생명축제 2차 VIP작정** 다음 주 주일(2월 15일) 1-3부 예배 중에 새생명축제 2차 작정이 있습니다. 한 영혼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시간이 되도록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셀개강** 오늘부터 2026년 상반기 셀이 개강합니다. 말씀과 삶을 나누는 가운데 공동체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상반기 셀모임이 되시길 기대합니다.
문의: 김학남 집사 (408)806-4133

◆ **화요큐티모임 '울림' 모임** 누구에게나 열려 있으며, 본당 앞 부스 및 큐알코드로 소그룹 나눔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큐티 말씀으로 삶을 나누는 은혜의 자리로 성도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접수: 2월 15일(주일)-3월 1일(주일) 3주간
첫 모임/장소/문의: 3월 3일(화) 오전 10시, EM 채플, 박은혜 권사 (949)910-0327



◆ **세례/입교 신청** 성인세례 및 입교식이 3월 29일 주일 예배 3부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 대상자들은 세례 교육 및 문답을 수료해야 하며 CIM, BYM, 예살, JM, 소망부는 각 부서에서 교육을 진행하오니 담당 사역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신청 기간/방법: 2월 15일(주일)-3월 1일(주일), 홈페이지
세례 자격: 만 12세 이상(BYM/CIM 이상) 및 베델교회 등록교인(6개월 이상 출석)
입교 자격: 유아세례를 받은 자로서 만 12세 이상(BYM/CIM 이상)
교육 일시/장소: 3월 8일(주일), 3월 15일(주일) 오후 12시 45분, 본당 2층 컨퍼런스룸
문답 일시/장소: 3월 22일(주일) 오후 1시 30분, 목회자실

◆ **BMA(Bethel Medical Alliance) 모임** 모든 의료 관련 전문인을 대상으로 의료 전문 지식을 통해 선교하는 BMA 모임에 초대합니다.
일시/장소/문의: 2월 28일(토) 저녁 5시 30분, 유년부실, 이석희 장로 (949)697-7606

◆ **베델 MIT 봄 학기 모집** 베델 MIT 봄학기 등록을 본당 앞 부스에서 받습니다. 62세 이상 시니어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강좌: 노래교실, 한국어, 서양화, 손뜨개질, 손 피아노, 힐링 피트니스, 인지 뇌크리에이션, 향기로운 인격만들기, 생활 한의학, 한국서예
기간/문의: 3월 6일(금)-6월 5일(금) 매주 금요일, 김재훈 장로 (714)390-4967

◆ **Beyond the Blue 가정 회복 영상세미나** 사별(가족 포함), 이혼(별거)으로 인한 슬픔과 고통을 치유하고 회복함으로써 하나님 안에서 소망과 새 삶의 변화를 돕는 세미나입니다. 코트야드 부스나 홈페이지에서 등록 가능합니다.
일시/장소: 3월 6일(금)-6월 5일(금) 13주간 저녁 7시, 조이채플(6시부터 식사)
문의: 전정례 권사(714)240-3718, 이란혜 전도사(949)422-8828

◆ **멕시코 일일 선교** 3월 14일(토) 티후아나 지역으로 일일 선교를 갑니다. 어린이 게임, 찬양, 의료, 미용, 안경, 노방전도, 건축 등 다양한 섬김의 자리로 구성됩니다.



신청 기간/방법: 본당 앞 부스나 홈페이지, QR코드로 신청
준비 모임: 2월 26일(목), 3월 5일(목) 오후 6시 30분, 유년부실
문의: 김광영 장로(949)233-0677, 최혁성 집사(949)205-5695

◆ **은퇴목사 조찬모임** 구정을 맞이하여 은퇴목사 조찬모임이 아래와 같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해당하시는 분은 꼭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일시/장소: 2월 21일(토) 오전 7시 30분 (헵시바 예배 후), 비전 채플
문의: 이명환 집사 (949) 702-7188

◆ **영어고등부(BYM HOLOS) PTA 모임** 올 해 예정된 행사와 프로그램, 수련회 일정, 그리고 캄보디아 여름 단기선교 계획도 함께 소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자녀들의 신앙 성장과 공동체 사역을 위해 학부모님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일시/장소: 2월 15일 (주일) 오후 1시-2시, 비전채플

◆ **영아부 PTA 모임** 이번 PTA 모임에서는 교역자/팀장/교사 소개, 동역의 방법을 나누는 소중한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함께 예배하며 나눔의 시간에 꼭 참석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일시/장소: 2월 15일(주일) 9시, 11시 예배 후 영아부실
대상: 영아부 부모와 예비 영아부 부모

◆ **소망 오케스트라 TA 및 봉사자 모집** 소망 오케스트라에서 앙상블 연습 시 파트별 연주 지원 및 지도 도움, 개인 레슨 시간 중 아이들의 연습 보조, 공연 및 특별 행사 시 함께 연주하며 섬겨주시 봉사자와 TA를 기다립니다.
모집 대상: 오케스트라 악기(현악기, 관악기 등) 연주가 가능한 모든 성도님 및 9학년 이상 학생 (학생 봉사자의 경우 봉사활동 시간 증명서 발급 가능)
신청 및 문의: 최 신 권사 (949)331-5169, 정봉화 집사 (562)207-7010

◆ **축하해 주세요** 김소라 양(김옥희 권사의 손녀, 김정호 집사/이정희 집사의 딸)과 이요셉 목사의 결혼식이 2월 14일(토)에 있었습니다.

◆ **위로해 주세요**
- 故 유태운 집사님(김용순 전도사의 남편)께서 2월 9일(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 故 이경복 권사님께서 2월 13일(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교회학교 주중 모임 안내	주중 예배 및 기도모임 안내	베델뉴스 편집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WANA(어와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parks / 금요일 오후 7시, 각 클래스(K-2학년) - Truth&Training / 금요일 오후 7시, 각 클래스(3-5학년) ■ 중,고등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YM(영어중고등부) / 금요일 오후 7시 30분, 비전채플 - CIM(한어중고등부) / 금요일 오후 7시 30분, 살롬채플 ■ 한국학교: 토요일 오전 9시 30분, 한국학교 각 교실 ■ 아기학교: 수요일(15-48개월) 오전 9시 45분, 할렐루야채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중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시 30분, 본당 ■ 헵시바 새벽기도회(토): 오전 6시, 본당/온라인 ■ 베델 수요저녁예배: 오후 7시 30분, 본당 ■ 예살금요예배(청년): 오후 7시 30분, 임마누엘채플 ■ 주일 레위기 기도 모임: 1-3부 예배시간 중, 컨퍼런스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행인: 김한오 담임목사 ■ 편집장: 김경자 권사 ■ 기자: 강정훈 집사, 강은혜 집사, 권두경 집사, 김규현 집사, 김유미 권사, 배민정 집사, 박혜성 권사, 안정선 권사, 이혜림 집사, 이소영 권사, 황수정 집사 ■ 사진 기자: 박상근 장로, 최호경 집사, 차규양 장로 ■ 번역: Grace Yi 전도사

비전 주차장 3345 Michelson Drive, Irvine, CA 92612 *주차 시 (Employee Reserved Parking)은 피해서 주차하시길 부탁드립니다. ◆ 베델뉴스 원고파일은 bethelnews@bkc.org로 보내주세요.

베델/갈릴리수양관 31600 El Cariso Trail, Lake Elsinore, CA 92530 ◆ 수양관전화번호(예약문의) (949) 943-9697 ◆ E-MAIL bgrcenter@hotmail.com

Just by Touching His Cloak

Mark 5:25–34

1. The woman who had suffered from bleeding for 12 years saw everything she depended on and hoped for fall apart, and things only got worse. Have there been times when nothing you tried helped, and you only became more discouraged or trapped?

2. The woman responded in faith when she heard about Jesus. If today's message is the "news of Jesus" given to you, how can you respond in faith?

3. When she touched Jesus' clothes, the source of her bleeding dried up. What is the "source" in your life that you want to bring to Jesus for healing and restoration?

4. Jesus brought out the woman who wanted to hide and led her to confess everything. Who should you confess and share your suffering and your story of meeting Jesus with?

5. Being unclean is not only about being judged for sin, but also a humble preparation to return to true worship. Let's share moments when we moved from uncleanness to sincere, heartfelt worship.

Apply to Life



English translations for
worship services via
Discord